

2019학년도 제 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원회의장	결재						
권외숙												
개최일시	2020년 1월 28일 오후 4시	회의장소 담당부서	행정관 605호 기획팀									
참석의원	강영숙, 김화경, 박소진, 박종성, 서채원, 신석하, 이서림, 이정규, 임지혜	기록자(간사)	권외숙	기록일	2020.1.28							
		불참의원	김택동, 김명림, 이재진									
		기타참석자	기획처장 오중산, 기획팀장 권외숙, 예산팀장 이경미, 학 사팀장 권경미, 대학원교학팀장 오현준									
안건	1.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0학년도 예산 자문 2. 학칙개정(안), 3. 대학원 학칙개정(안), 4. 교육대학원 학칙개정(안)심의											
배포자료 및 기타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예산(안), 학칙개정(안), 대학원학칙개정(안), 교육대학원 학칙개정(안)											
<p>■ 심의(자문) 사항</p> <p>1. 의장은 총 의원 12명 중 9명이 참석하여 2019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가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포하다.</p> <p>2. 의장은 예산팀 이경미 팀장에게 첫 번째 자문 안건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예산(안) 설명을 요청하다.</p> <p>①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p> <p>이성립 의원은 지출 중 보수에 대한 산출 근거 교원과 직원의 인원수를 문의하다. 예산팀장은 보수의 경우 전임, 비전임 교원과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까지 모두 포함된 인원으로 정확한 각각의 산출 근거 인원은 추후 자료를 보완하여 안내하겠다고 답변하다.</p> <p>이정규 의원은 정규직 급여 중 직원보수만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내용으로 보면 법정전입 부담금으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교원보수 대비 직원보수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아 추경에 증액된 것인지를 질문하다. 예산팀장은 법정부담금에 퇴직자들의 퇴직수당이 포함되며, 퇴직수당 발생으로 법정부담금이 증가된 부분이라고 답변하다.</p> <p>강영숙 의원은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마이너스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2020년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등록금 수입이 늘지 않으면서 교육부대수입과 교육외수입을 증가시킨 이유와 지출 부분에서 2019, 2020년에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가 증가한 이유, 2018년 대비 전입 및 기부수입이 감소된 이유를 질의하다. 예산팀장은 토지변상액 증소로 85억 회수가 반영되어 2018년 교육외수입이 늘어났고, 토지매각으로 인한 이익 약 30억이 2020년 교육외 수입에 반영되었다고 답변하다. 프라임 국고를 제외한 경상수지를 보면 2019년도에만 경상수지가 대폭 늘어난 것은 아님을 이야기하다. 2019년 추경 대비 2020년 본예산 연구학생경비가 증가된 것은 2019년에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 감소와 국가장학금 2유형 인센티브를 장학재단에서 지급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답변하다. 2019년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매년 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따라서 2020년도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인센티브 금액을 반영하였다고 답변하다. 또한 본예산 때 별도 설명 예정이지만 우리대학은 기숙사 수용율이 11%를 넘지 않아 외부기숙사 임차로 261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예산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금 계정으로 예치하였다가 임차 사용료를 납부 하였으나 2020년에는 그 부분을 수입과 지출에 반영하였다. 그로 인한 증가분임을 설명하다. 전입 및 기부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2018학년도에 프라임사업 종료로 인해 2019년에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임을 설명하다.</p>												

2019학년도 제 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원회의장	결재
	권위숙	박종성	

■ 심의(자문) 사항

의장은 수입이 본예산 대비 15억4천만원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 결산 대비 어떠한지 질문하다. 예산팀장은 2018년도 결산 수준과 2019년 추경 수준이 비슷하다고 답변하고 의장은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목표 대비 미달성한 부서에 대해서 어떠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 질의하다. 이정규 의원도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 수입이 과대 계상 되어있는 것 같고 수입 목표 대비 미달성한 기관에 대해 피드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다. 신석하 의원은 수입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적자인 기관에서 수입이 계속 줄고 있다면, 각 기관별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봐야 한다. 그리고 자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불가하다면 학교 차원에서 해당 과정 폐지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 하다. 예산팀장은 매해 수의 과정의 분석을 통해 적자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인력 감소 운영을 마련하거나 정책적으로 공간 공용화를 통한 비용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개선을 반영하고 있다고 답하다. 또한, 본예산에 단기수강료수입이 증가 반영된 부분은 각 과정의 수의 확대를 위한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 부분과 우리대학의 재정확보를 위한 수익부서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함을 설명하다.

이정규 의원은 수익부서에서 관련학과의 반발 등으로 수익성이 있어도 개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본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 등 해결 방안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다.

의장은 예금이자 수입이 예산 대비 7억5천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 상품에 투자 하였는지 문의하다. 예산팀장은 자금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위험성을 검토하여 채권에 은행 위탁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다. 의장은 본예산보다 수익이 확대되어 보이는데 리스크 해지가 된다면 투자금액의 범위를 조금 확대할 수 없는지를 질의하다. 과거의 은행의 예·적금 만기 상품에만 투자하던 방식은 지양해야 함을 제안하다.

박소진 의원은 기부금 수입이 어디서 주로 들어오고 있는지 기부금 기부처의 다양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록금 수입에 도움을 준 재직자전형의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국제화 영향을 위해서라도 우수한 외국인 학생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그 외의 사항으로 꽃산달 공간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다. 기획처장은 2018년 기부금 수입이 30억 조금 안되는 것으로 기억된다고 답변하고, 재직자전형이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 외국인전형을 늘리기 위한 노력과 조건부 입학을 통한 외국인 전형을 확대하려는 노력 전개, 경영학부에서 외국인 교원을 채용하여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려는 계획 수립 등의 상황을 설명하다. 꽃산달 공간은 올해 활용이 될 예정으로 글로벌 기관과의 MOU협약 체결이 진행 상황임을 이야기하다.

② 2020학년도 본예산 편성(안)

강영숙 의원은 실험동물실 이전 설치가 시급하므로 이를 예산 평성 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다. 기부금수입 목표를 20억원 정도로만 예상을 잡은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다.

이성림 의원은 도서구입비가 작년 대비 4억 감소 편성되었는데, 도서관과 상의하여 반영된 것인지 질의하다. 예산팀장은 도서구입비는 교비 반복성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환율과 기관의 구독료 인상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비용 감축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서관과 노력하여 비용을 줄여보려 하며, 부족할 경우는 이월 금을 통해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2019학년도 제 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원회의장

결재

회의록



■ 심의(자문) 사항

이정규 의원은 법정부담금이 각종 평가에도 들어가는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입금 예산 미편성은 분명 문제임을 지적하다.

신석하 의원은 경상수지 적자가 122억 정도에서 더 늘지 않도록 본부가 노력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법인의 수익성 자산 비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학교 측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용인연수원 부지에 대한 활용 예상과 대학발전계획에 대해 구성원들과 공유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대학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지속적인 평가와 리뷰를 통해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다. 퇴직자를 고려할 시 교원에 비해 직원은 신규채용 인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다.

이정규 의원은 결원에 대한 산술적인 증원이 아니라 우수 교원의 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다.

기획처장은 용인연수원의 리모델링은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용인연수원과 새빛관은 매입 의사를 밝혀온 외부기관에 매각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2019학년도부터 경상수지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다. 대학발전계획은 정보공시를 통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교무위원회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우리 대학은 고정비나 반복성 예산 때문에 학과에서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점. 예산의 환류가 쉽지는 않지만 금번 사업성 예산 등은 발전계획에 맞추어 예산 편성을 구조화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다. 직원의 증가는 정규직이 과거 약 220명에서 현재 190명 정도까지 낮춰진 상태이고 전체 정규 직원의 연령이 매우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계약직 직원이 많이 증가한 상황임을 이야기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 본부는 교비 재원의 계약직 직원의 비율을 절반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비 재원의 계약직 직원을 줄이고 대신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방안으로 5명 신규 채용에 반영하였음을 이야기하다. 신규 직원 채용이 5명이지만 전체적인 직원 보수는 낮아질 것임을 부연하다. 전임교원 충원 전략은 자연 감원에 대한 충원은 어렵겠지만 발전계획에 맞추어 충원 되는 것이 본부의 방향임을 이야기 하다. 향후에는 전임교원 충원 전략이 더욱 필요함에 공감하다. 이정규 의원은 기획팀과 교무팀에서 전반적인 학제에 따라, 퇴직 인원에 따른 교원 충원이 아닌 전략적인 교원 충원 전략을 세워줄 것을 건의하다.

3. 의장은 두 번째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학사팀 권경미 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장은 의원들이 안건에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다.

임지혜 의원은 신입생의 입학 후 최초 1년간 휴학을 불허한 규정은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임을 이야기하다. 의장과 기획처장은 제5차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본 학칙 개정의 취지를 재설명하고 이해해 줄 것을 이야기하다.

4. 의장은 세 번째 대학원학칙개정(안)을 상정하고 대학원교학팀 오현준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장은 의원들이 안건에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통과시키다.

박소진 의원은 안건과 별도로 대학원 박사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학과 신설에 관련한 형평성 논란을 이야기 하며 대학원교학팀장의 답변을 요구하다. 대학원교학팀장은 석·박사과정 학과 신설 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 대학원위원회에서 20일날 의결되었고 그 적용방안을 이야기 하다. 박소진 의원은 대학원 발전을 위해서 대학원 정원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다. 강영숙 의원은 신설학과의 경우 석사과정 먼저 운영을 해본 뒤 박사과정 정원을 풀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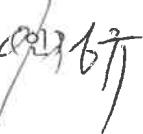
2019학년도 제 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원회의장	결재 
	김민숙	○	

■ 심의(자문) 사항

5. 의장은 네 번째 교육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상정하고 기획팀 권의숙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신석하 의원은 제7조와 12조 개정(안)의 경우 개정 조항 문구가 명확하지 않고, 제9조의 경우 학칙시행세칙에 해당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학칙 제9조를 삭제해야 함을 이야기하다.
의원들은 교육대학원 학칙 제 7조, 9조, 12조는 다음번 대학평의원회에 재상정하여 검토하기로 하다.
의장은 교육대학원 학칙 제21조, 22조, 27조에는 의원들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통과시키다.
6. 의장은 18시 0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19학년도 제 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참석의원 서명

의장 <u>박종성</u> 	부의장 <u>이정규</u> 
의원 <u>강영숙</u> 	의원 <u>김화경</u> 
의원 <u>박소진</u> 	의원 <u>서채원</u> 
의원 <u>신석하</u> 	의원 <u>이성립</u> 
의원 <u>임지혜</u> 